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인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사를 시작하면서 야외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신심이 돈독하셔서 불사를 일찍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스님네들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불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사계절을 맞고, 또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항상 모습을 바꿔 가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손자로 태어나도 증조할아버지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전에 그 속에는 뼈저린 아픔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뼈저린 아픔은 어떤 것인가? 즉 말하자면 인간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벌레도 모두 생명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각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벌레나 하등 동물 같은 것은 지혜를 갖지 못하고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만약에 장마가 들려고 하면 개미나 벌레 또는 어떤 짐승들은 미리 다 알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며칠을 격해 놓고 아예 그냥 식구들을 다 몰고 갑니다. 세간 짐을 트럭에다 싣고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연이어서 등에다가 함께 짊어지고 발을 맞춰서 몰고 나가는데 아주 비호같이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나 수수도 장마가 들어서 애쓸 것 같으면 '야! 올해 장마가 든다면 큰비가 와서 뿌리가 뽑힐 테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뿌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박고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를 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알을 끌고 풀 속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 위에다 걸쳐 놓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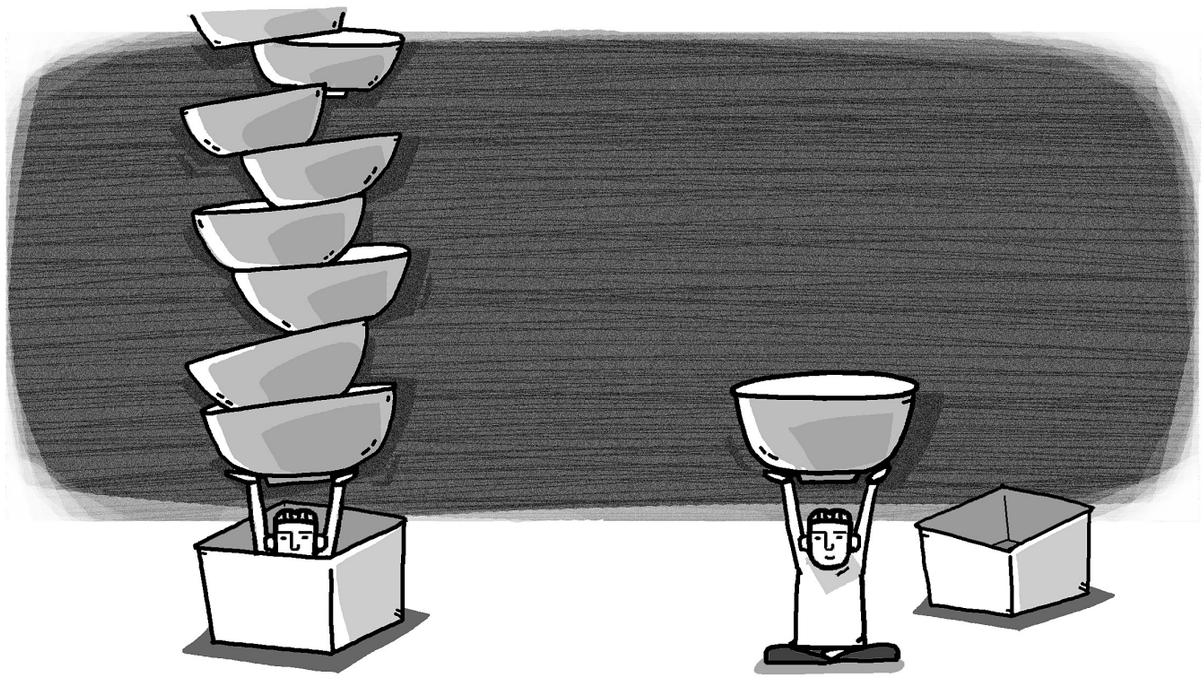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한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똥 마려워." 하면 "그러면 빨리 똥을 눠라." 그러고, 어린애가 너무 어려서 바지를 못 벗으면 바지까지 벗겨 주면서 변소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론이나 가설이 붙습니까? 진정코 그런 게 붙지 않죠? 애들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할 때에 얼른 물 떠다 주면 됐지, 거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목말라서 물 먹는데 이론이 왜 붙습니까, 거기? 목마르니까 그냥 먹는 것뿐이지요.

불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었느니, 또 현실에 어떠한 업을 짊어졌느니, 미래에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느니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질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천체물리학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좀 더 깨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에 뭐가 걸려서 이사를 못 가느니, 또 부적을 해서 붙여야 되느니, 나쁘니 좋으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신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게 걸려서 그렇게 되고 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미신이 아니라면 미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고 뼈저린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 그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모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이제 사월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월초파일을 앞두고 한 오천 명이 거기에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절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천 명이라면 산을 하얗게 메울 정도니까요. 거기는 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겨울 오바나 잠바들을 걸치고 포대기를 걸치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촛불을 켜는데 그 마음들이 그저 자기 촛불만 잘 켜려고 애쓰더란 말입니다. 자기 등만 좋은 데다 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기 달면 어떻고 저기 달면 어떻습니까? 꼭 법당 앞에만 걸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싸움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젊은이 셋이 등을 걸려다가 노인네들이 "젊은이! 왜 남 걸어 놓은 데다 이렇게 부딪치고 이러느냐." 하고 하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양보하고선 산모퉁이를 돌아서 산신각 옆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디다. 어린애를 낳지 못해서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요새 절에 다니면서 인등을 켠다고 하시죠? 그것은 인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인등인 것입니다. 몸뚱이는 등이요, 마음 중심은 촛대요, 마음 내는 것은 불이라는 얘깁니다, 촛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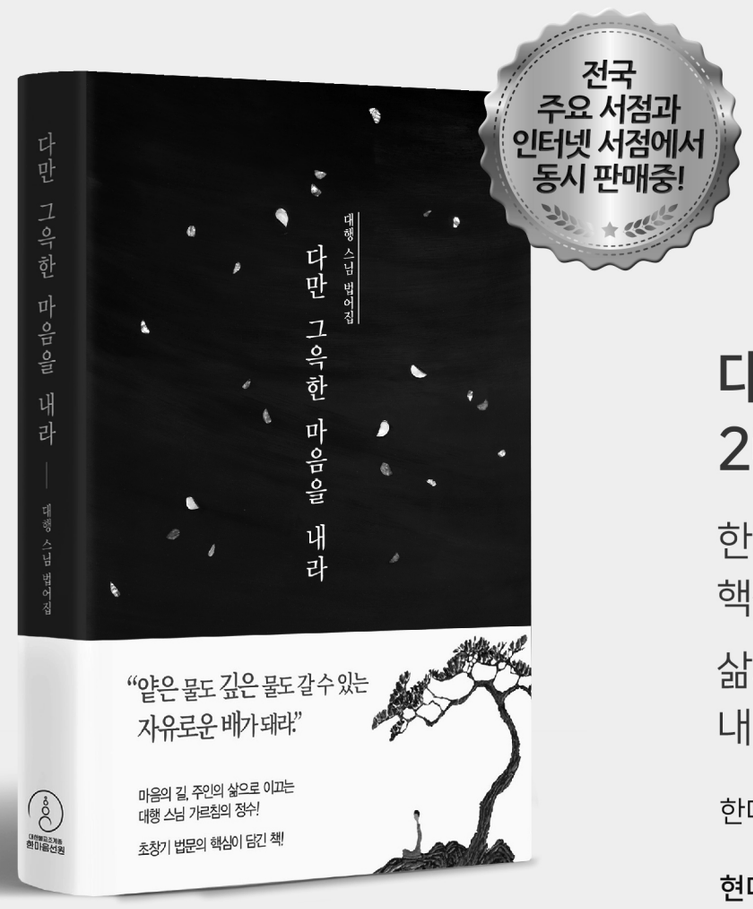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한평생 산다 한들 한 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 철 사는데, 바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참선! '주인공이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렇게 형성시켰으니, 아! 주인공만이 나를 낫게 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은 켜져 있는 것이고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 찰나찰나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듣는 거나 만남이나 뭐가 고정됨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空)이 즉 색(色)이요, 색(色)이 즉 공(空)이니라. 과거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잘 쓰면 스스로를 잘 이끌어 가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 너희가 너희를 구덩이에다가 넣는 격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지각입니다.

과거의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빚보증을 선다고 도장을 떠억 찍어 줬더니 오늘 집안이 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잘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구성된 일심에서 나오는 활용은 여러분의 생활과 합치돼 있습니다. 불법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4월 8일에 인등을 달러 다닌다 부적을 쓴다 이러는 것이 다 허탕한 짓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를 다니는 거고, 형편에 맞는 날을 잡아 그냥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력 신앙이 아니라 내 주인공에 의한 자력 신앙으로써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찰나찰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생명력이 뚜렷하게 있는 나, 영원한 나에게 자력 신앙으로써 '아,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지.' 이러고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고, 누가

☞ 18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